한국지리학회지 4권 2호 2015(279~291)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본 전북 구도청사 주변 재생방안에 대한 연구: 전주 구도심 구도청사 재사용을 중심으로

김준영*

A Study on Renewal of the Area around the Old Jeollabuk-do Hall in Jeonju Urban Core: Concentrated on the Reuse of the Old Jeollabuk-do Hall

Jun-Young Kim*

요약 : 이 연구는 전주 구도심의 도청사 이전에 따른 구도청건물의 보전과 재사용에 의한 전주 구도심의 도시재생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포스트 모던시대의 도시의 정체성은 도시의 경쟁력으로 인정되는 가운데 도시의 정체성을 이루는 요소를 논하였다. 도시정체성을 이루는 다양한 요소 중 도시 내의 건축물이나 경관으로 이루어지는 물리적 장소는 도시민의 행위와 구체적인 기억의 배경이나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구도심은 역사적 유산이나 산업유산이 많이 있는 곳으로 시간의 층위가 다양한 만큼 장소성 있는 공간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도시의 성장과 함께 그 활기를 잃어가며 소멸해가는 곳으로 전락하는 곳이 생기기도 한다. 이러한 장소를 포스트모던시대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기능과 성격을 부여함으로써 재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재생방법은 단지 하나의 건축물을 재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장소성 있는 공간을 네트워크화 하는 추세이다. 이것은 도시의 본질적인 형성요소인 사람이 모이는 것을 위한 다양한 행위와 다양한 환경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주 구도심의 구도청사 주변은 풍남문과 객사를 연결하는 주요한 도시의 세로축인 감영5길과 전라감영로로 둘러싸인다. 이러한 가로구조는 조선시대부터 형성되어 근대, 현대를 통해 변화해 왔으며 현재의 물리적 환경은 유휴공간의 생성이나 도보환경의 불연속성, 건축물 스케일의 혼재 등의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 새로운 기능을 갖는 공공적 공간을 삽입함으로써 장소의 재생이 가능하다. 우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보도의 제공과 보행우선의 분위기를 만들고 구도청사에 새로운 도서관이나 전시관 같은 공공적 기능을 삽입한다. 또한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간이 시민의 만남과 휴식의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면서 조성하는 것이 그 대안이다.

주요어 : 도시재생, 정체성, 장소성, 복원, 보전 및 재사용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propose an urban renewal plan for the old downtown Jeonju with conservation and reuse of old Jeollabuk-do Hall. I discussed the factors that form the urban identity which is recognized as a critical factor in post-modern city. Architecture and landscape provide physical space which constitute urban identity and these meaningful space become the place that provides the background and the space for action and specific memory. The old town has more potential to reflect urban identity, because it has a lot of layer of time with historical legacy and industrial heritage. However, some places in urban area are fallen into derelict places with losing their vitality with the growth of the city. It is required to regenerate these derelict areas for us to give the new program and features for the city in post-modern era. The trend of the regeneration is developed from one precious spot restoration to area generation which is networking various specific meaningful

*전주대학교 건축학과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Architecture, Jeonju University, junyoungkim@jj.ac.kr)

locations. Because it can facilitate a variety of actions and events that are essential elements for people's gathering. Gamyeong 5th gil in Jeonju old town has been formed in the Joseon Dynasty. It was the longitudinal axis of the city connecting from Pungnam gate to Gaeksa. But it has been changed into an unattractive street with physical problem such as generation of derelict space, discontinuity of walking route, and mass with scale of buildings recently. It is possible to reproduce the place by inserting a public space with the new features and programs for solving these problems. The first step is to paving with pedestrian oriented environments. Next is to transferring current court yard parking space into urban public park for gathering and resting. The third is to reuse old Jeollabuk-do Hall into the library or the museum for the public destination or attraction.
Key Words : Urban regeneration, Urban identity, Sense of place, Restoration, Preservation and reuse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도전과 함께 도시재생이라는 주제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도시인구의 증가와 자동차도로의 확장에 의한 도시영역의 확장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도시의 확장은 구도심에서 인구의 이동에 의한 공동화로 이어질 수 있음이 제기되었다(진경돈·박경난 역, 1992). 한편, 국내에서도 공공기관들이 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구도심에서 인구의 이탈 및 활력이 감소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한 대안으로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천년의 고도라는 전주의 구도심은 전주부성으로 생성된 도시구조가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도시의 성장과 함께 쇠락하는 곳도 생기고 있다. 특히 구도청사가 2005년 6월 서부신시가지로 이전함에 따라 많은 공공기관의 도심이탈이 있었다. 이에 따라 주변거리는 상권이나 도시민의 거리이용 등의 활기를 잃어가는 등의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전주시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전주시 구도심의 공동화현상을 막기 위한 해결책으로 구도심의 개발을 진행 중이다. 전주시의 구도심 개발방향의 하나는 전통을 컨텐츠로 하여 한옥마을과 연계한 관광 컨텐츠의 확장에 집중되어 있다. 한옥마을의 성공으로 그 주변의 개발 방향이 전통 컨텐츠 개발로 진행되고 있으며 구도청사를 철거하여 전라감영을 복원하는 계획도 그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지자체의 재원마련이나 구도청사의 철거를 요구하는 전라감영복원의 가치와 구도청사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보존 가치문제가 대립하며 이에 대한 합의 도출이 어려워 복원계획은 중지된 바 있다가 현재 기존 철거결정을 받아들이며 전라감영 복원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구도청사 철거에 대한 반대 의견들이 있음은 복원에 대한 충분한 공감과 동의가 쉽지 않으며 향후 이러한 현상은 반복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한다.

본 연구는 구도청사 이전에 따른 그 주변의 물리적, 공간적 문제점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구도청사의 철거보다는 지속가능한 도시론의 추세에 맞게 재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도시의 다양한 행위와 건축적 경험에 대한 배경이론과 지속가능한 개발의 담론을 고찰함으로써 도시의 맥락 속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장소성을 갖는 공간을 만드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이 연구는 전주 구도심 감영5길과 전라감영로로 둘러싸인 구도청사와 그 주변을 공간적 범위로 한다. 구도청

그림 1. 연구의 공간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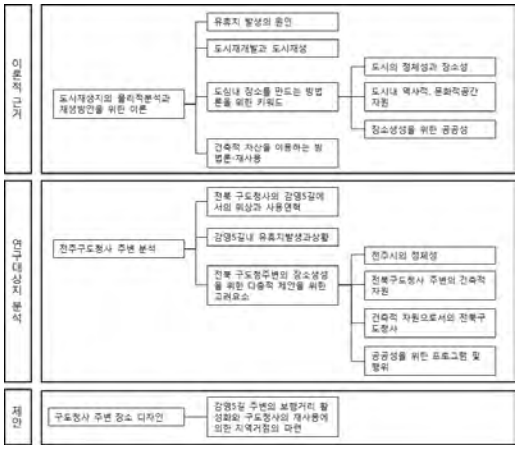

그림 2. 연구의 구성

사 이전적지 주변은 그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이 중 실천적 대안으로 건축물의 재사용을 통한 장소디자인의 경향을 살펴본다. 특히 건축물의 재사용에 대한 근거를 찾기 위해 근대건축물의 기준이 1950년대 이전인 상황 속에서 1950년대 건축물의 재사용에 대한 가능성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지의 물리적 분석과 재생방안 제안을 위한 이론적 근거로 도시공동화의 한 이유로 유휴지발생의 원인을 살피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도시재개발과 재생의 경향을 본다. 도시재생의 방법으로서의 장소 만들기를 위해 장소성과 도시정체성, 공공성의 관계를 밝혀 건축적 자산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의 재사용의 근거를 밝히고자 한다.

3장에서는 이와 같은 이론적 배경을 통하여 전주 구도심의 감영5길 주변을 구도청사 이전적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장소제안을 위한 요소를 살펴본다.

4장에서는 분석된 내용을 통해 구도청사 재사용을 통한 도시의 장소성 제고의 도시재생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런 제안은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고자 한다. 그 하나로 도시마케팅에서의 접근인 도시에 대한 방문지로서의 성격과 다른 하나는 도시 내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적 기능으로서의 편의시설 확충의 측면에서 장소를 제안하는 것이다.

II. 이론적 고찰

1. 도시의 유기적 성장과 쇠퇴에 따른 공간내 유휴지의 상황

시카고학파의 버지스 이론에 의하면 도시는 유기적으로 생성되어 성장하고 쇠퇴하여 소멸해간다(황희연 등, 2011). 이러한 변화과정은 산업구조의 변화, 인구의 도시유입과 이동에 의해 설명되는데, 이에 의해서 유휴공간이 발생할 수 있다. 유휴공간의 발생에 원인으로 Roger Transik은 근대이후 자동차 사용의 증가와 근대 건축가들의 외부공간에 대한 태도, 도시를 분리했던 도시재개발기관의 구획정리와 토지이용정책, 공공공간의 사유화, 도시내부의 산업, 군사부지의 변화된 토지이용 등을 들었다(진경돈·박경난 역, 1992). Conzen에 의하면 도시의 구성요소는 토지이용, 건축물과, 필지패턴, 가로패턴인데 이중 필지와 가로패턴의 변화속도가 매우 느린데 비해 토지이용과 건축물은 변화하기 쉽다고 하였다. 이러한 시간에 따른 각 요소들의 변화속도의 차이로 외부공간은 시간에 따라 유형화되지 않는 공간들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필지패턴은 변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축물의 형태나 대지 내 입지의 변화가 생기거나 합필 등에 의한 규모가 다른 건축물이 새롭게 들어서면서 기존에 정의되었던 외부공간이 더 이상 유형화된 공간이 되지 않고 성격이 모호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강홍빈 등 역, 2009). 이러한 도시 공간 내 유휴지는 도심공간에서 그 발생이 현저하며 이는 도시의 경관에 활기를 없애며 공동화로 이어져 다시 유휴지발생을 가속화시키는 도심해체의 상황으로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도심공간에 대한 재생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그 방법으로 도심의 전면적 철거에 의한 재개발과 부분적 도시재생의 방법론을 비교하고자 한다.

2. 도시재개발과 도시재생

우리나라는 1950년대 전후 도시복구를 위한 노력, 197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 지향적 도시개발정책이 1990년대에는 2000만호 주택건설사업과 같은 대규모 도시개발로 이어져 도시가 급속하게 확장되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질적 도시 관리와 경쟁력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으로 도시성장과 함께 삶의 질 향상, 도시정체

성 확립, 자연환경의 회복 등의 지속가능한 성장개념이 병행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있다. 이로써 도시개발에 대한 대안으로 도시재생이 부각되고 있는데 신도시 조성 같은 개발형 방식보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소단위로 진행하는 수복형 방식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수복형 도시재생의 양상으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구상가 지구에 대한 활성화, 근린을 위한 커뮤니티시설 확충에 의한 근린재생, 노후화된 주거시설에 대한 근린재생 등이 있다. 특히 2013년 12월 도시재생 특별법이 만들어지며 도시내부의 구도시가지 쇠퇴에 대한 대안을 강구할 수 있는 법제도가 마련되며 이런 수복형 도시재생사업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수복형 도시재생은 도시의 대규모 개발에 의한 양적 성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도시의 질적 향상의 중요함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도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복원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김우영, 2012). 뿐만 아니라 도시정체성을 위한 장소성 있는 건축과 경관에 대한 재발견이 중요해지고 있다.

3. 도시의 정체성

현대의 도시들은 타 도시에 비교한 경쟁력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그 정체성을 찾고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도시의 정체성은 타 도시와는 다른 특정 도시만의 색깔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은 소속감을 가지며 도시의 커뮤니티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된다. 도시의 정체성은 그 지역을 이미지화 할 수 있게 하는 동질성과 한 지역이 갖고 있는 고유한 이미지로 차별화되는 개별성 있는 것들로 자연스럽게 공감을 이루며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이정수 등, 2011).

도시의 이미지를 논하기 위해 Kevin Lynch의 저작 '도시의 이미지성'은 많은 도움을 주는데 그는 도시의 가독성(legibility)과 이를 통한 이미지화 가능성(imageability)을 논하였다. 개인이 갖는 대상에 대한 이미지는 다른 사물과 구별되는 정체성, 대상의 공간적 관계인 구조, 대상물이 가지는 실용적, 정서적 의미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개인들의 이미지가 도시민이 공유하는 공동의 이미지(public image)화 되며 그 도시의 정체성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도시의 이미지는 사람들이 구체적인 물리적 환경에서 개별적 행위와 의미부여가 누적되어 도시민에게 공유될 수 있는 집단적 기억과 의미부여에 의한 이미지로 만들어지며 이런 이미지의 집단화에 의한 도시정체성은 단시간에 인위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정체성은 시간적인 연속성과도 관련을 가지며 도시 내 연속성을 줄 수 있는 오래된 건물이나 기념물, 가로패턴 등은 도시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물리적 요소라 할 수 있다(강홍빈 등 역, 2009).

산업시대에서 후기산업시대로의 시대변화에 따라 새로운 도심의 기능과 질이 요구되는 가운데 포스트모던 시대의 구도심의 정체성은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즉 유럽의 경우 산업혁명과 함께 밀집되었던 구도심의 산업시설을 현대의 도시에서의 적절한 기능에 맞춘 문화시설로 바꾸어 재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는 구도심의 이미지가 생산기능에서 소비와 서비스기능의 중심으로 재창조 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도시의 정체성의 요소를 분류해보면 그 지역의 토착화된 역사, 문화, 경관, 산업분야를 들 수 있다(오덕성 등, 2007). 한 도시의 역사성을 대별할 수 있는 유형자산으로 문화자산과 산업유산이 있다. 문화자산에는 역사적 유산이나 기념물이 있다면 산업유산에는 이제는 그 기능을 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장이나 창고 등 근대건축물들이 있다. 산업유산은 한 지역의 도시화로 인한 산업기술이나 생활의 변천 등에 의한 전근대에서 현대기로의 경관 변화를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조명을 받고 있다(이지현·동정근, 2007). 또한 무형자산으로 전통음식, 전통기술이 있다. 또 지역의 정체성을 대별할 수 있는 경관적인 요소로 산, 들판, 바다, 호수 등 지리적인 요소를 들 수 있다. 또한 기후적인 요소도 이에 합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이룰 수 있다. 또 하나의 도시정체성을 이루는 요소로 산업적인 요소로 특산품이나 주요 산업경제를 대별해주는 업종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역사, 문화와 관련된 유형자산 들과 경관적 요소는 물리적 구조로 Kevin Lynch가 논한 통로, 경계, 지구, 결절점, 랜드마크 등 5개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시간적 연속성이 긴 것일수록 이미지의 공유가 쉬우며 도시의 장소성과 관련이 높다.

4. 도시정체성과 장소성의 관계

Edward Relph에 의하면 장소의 정체성, 즉 장소성은 물리적 환경, 활동, 의미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장소감 있는 공간의 특징은 다양한 활동을 수용하고 있다. 이는 물리적 환경의 다양화와 다양한 행위를 수용할 수 있는

매력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또 Knox와 Ozolins에 의하면 특정시기 유형의 건물과 건조환경의 요소는 그 시기의 시대정신을 담고 있어서 다양한 시기의 건축물을 갖는 도시는 모든 복합적인 의미의 층을 가진 텍스트(신호와 상징)로 읽히며 이런 면에서 다양한 양식의 건축물과 다양한 행동이 일어나는 장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강홍빈 등 역, 2009). J. Jacobs 또한 도시의 거리나 지구의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이를 위해서 지구내부의 가능한 많은 장소가 하나의 기본적인 기능뿐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단일블록의 물리적 크기는 작게 하여 보행환경을 다채롭게 하며 건설된 연대와 상태가 다양한 건물들이 서로 섞여 있으며 목적은 각기 달라도 다양한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김영기 등, 2009).

이런 점에서 도시 내 장소의 생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양식의 건축물을 보존하며 재해석하는 것과 이러한 건축물을 중심으로 다양한 행위와 기능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장소성이 높은 공간은 인간의 특별한 경험의 장이 되며 특별한 도시의 이미지를 만들며 도시정체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임승빈 등, 2011). 도시정체성을 구성하는 유형 자산들은 개인의 행위나 경험을 담는 공간이거나 배경을 제공하며, 무형자산은 특별한 행위나 경험을 증폭시켜 집단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Edward Relph는 무장소성을 논하며 장소의 특징을 무심하게 지워버리며 표준화된 경관을 만들어내는 것이라 했는데 이는 표준화나 과거에 대한 무조건적인 회귀적 모방, 이익집단의 장소의 점유에 의한 공동체의식을 약화함으로 장소의 특징이 없어지는 것을 경계하였다. 또한 의도적으로 장소를 다른 유명한 곳의 분위기를 내거나 과거의 건물을 재현하여 상품화하기 위해 가공된 장소를 만드는데 이를 Disneyfication이라고 한다. 하지만 피상성, 타자성, 허구성으로 오히려 장소성을 잃는다(강홍빈 등 역, 2009). 이러한 연구는 도시 내 장소성 있는 공간의 형성이 단기간에 인위적으로 이루어지 않음을 시사하며, 주어진 환경자원의 보존과 활용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5. 공공성과 장소성의 관계

장소감 있는 공간의 다양한 활동과 이를 위한 다양한 물리적 환경의 중요함을 논하였다. 이러한 장소가 다양한 행위와 기능으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공공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근대건축의 내부적 공간에 대한 관심과 외부공간에 대한 배타성으로 인해 도시의 공공공간은 외면되었다. 이와 더불어 공적공간에 대한 사유화도 많이 진행되었다. 소비주의는 도시의 사적소유를 부추겼으며 자동차사용 또한 도시의 공공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이 가운데 도시의 공간적 재생을 위한 공공적 공간의 회복이나 삽입이 중요해지고 있다. 도시의 원형적인 의미가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있다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의 마련은 도시의 원형적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도시의 사적공간화에 대한 예방이나 처방으로 공공적 공간의 적절한 배치와 다양한 공공적 행위들을 유도하는 것은 장소성 있는 공간을 늘려가는 방법이다.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과 행위들을 위하여 공공공간에서의 다양한 행위로 보행, 휴식 및 오락, 만남과 회합, 행사 및 집회, 상거래 등을 들 수 있으며 공공적 회합을 유도하는 건축물로서의 시민회관이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예술관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건축물이 주변경관과 더불어 공공공간으로 이용되기 위한 조건으로 시각적 투과성이나 접근성이 중요하며 다양한 행위들을 담을 수 있는 이용자의 선택의 여지를 줄 수 있는 융통성을 갖춘 외부경관이 함께 조성되어 건축물자체의 이용 외에 다른 부과적인 행위들이 유도되어야 한다.

6. 도시재생과 장소성의 관계

도시정체성을 위한 장소의 창조 및 강화가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도심재생을 위한 장소성 있는 공간은 다양한 행위를 수용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임을 논하였으며 이런 공간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그 공간의 공공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이런 점에서 도심 내 역사적 유산이나 기념물, 산업유산에 대해 공공적 기능을 삽입하거나 공공공간을 회복시키는 것은 매우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역사성 있는 건축물은 다양한 양식의 건축물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건축물에 공공적 기능을 삽입함으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축물의 재사용은 기념비적인 건축물의 단순한 원형보존을 넘어 역사적 환경의 정체성

을 유지하면서 경제적 사회적 측면의 도심내 정주인구의 확보, 소매업의 활성화, 주상복합용도 개발, 보행환경 개선과 문화시설 확충 등의 기본전략을 통한 현대의 사회생활과 융합을 추구하는 추세이다.

또 하나의 도시재생의 세계적인 경향은 기념비적인 하나의 건축물을 보전하는 점적인 재생에서 다양한 건축환경이 네트워크를 이루어 면적으로 형성하는 것이다(김홍기, 2004). 이는 도시가 하나의 대표공간보다는 다양한 공간의 조화에 의한 다양한 경험과 의미부여에 의해 이미지가 형성됨을 추론할 수 있으며 다양한 장소들의 네트워크 형성에 의한 장소적 구조가 만들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각 장소들의 연결을 위한 보행네트워크와 주변의 쉴 수 있는 편의시설은 지역주민, 관광객에게 필요하며 Kevin Lynch가 지적한 바 있는 통로로 작용하여 도시의 가독성을 높인다.

7. 역사적 기념물에 대한 복원 재건축, 수리를 통한 장소 만들기에 의한 도시재생

한 장소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여러 건축물의 각기 다른 모습과 기능으로 존재하여 왔다. 이런 건축물의 변화는 점차적인 경관의 변화를 가져온다. 또한 다양한 시대의 건축물이 한 도시에 공존함으로 도시의 다양성이 유지되며 이로 인한 다양한 장소의 생성이 가능함을 이미 논하였다. 이를 위한 역사적 건축물에 대한 인식 확대와 재사용에 대한 방안강구는 점점 더 중요해지리라 기대한다.

Alois Riegl은 「기념물의 현대적 숭배」에서 기념물의 가치를 기억의 가치와 현대적 가치로 논한 바 있다(최병하 역, 2013). 기억의 가치는 세 가지 범주로 의식적 기억의 가치, 역사적 가치, 경년의 가치를 얘기하며 의식적 기억의 가치에서 경년의 가치로 발전해 왔다고 하였다. 의식적 기억의 가치는 기념물에 기념하고자 하는 내용의 직접적인 기록을 의미하며 역사적 가치는 발전사관적 측면에서 기념물이 담는 역사적, 예술사적 중요성이나 의미를 얘기한다. 또 하나로 경년의 가치는 앞선 두 가치에 비해 그 의미가 최근에 주요하게 등장한 것으로 기념물에 나타나는 연륜적 흔적에 의한 풍부함과 다양함에서 오는 가치이다. 즉 기념물이 전쟁이나 세월속에서 허물어져 있어 자연경관과 어우러져 있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는 기념물에 대한 개인의 다양한 해석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결국 기념물을 통해 인간의 유한성, 생성과 소멸을 깨달을 수 있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러한 경년의 가치를 위해 기념물에 대한 자연적인 생성과 소멸을 보호하며 특히 기념물의 자연적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통한 소멸의 과정에서 미를 찾고자 하였다(최병하 역, 2013). 이런 경년의 가치는 폐허에 대한 동경과는 구별되며 흔치 않은 시대적 건축물에서 시간의 추이에 따른 낡아짐과 연륜을 유지하며 보전하는 일은 중요하다고 하겠다. 의식적 가치에 비해 역사적 가치와 경년의 가치는 주관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기념물에 대한 경험적인 인식과 감상으로 절대적이기 보다 상대적인 것임을 의미한다.

현재의 가치는 사용의 가치와 예술적 가치로 나눌 수 있는데 사용의 가치는 기념물이 자연적 풍화에 의한 경륜을 누적하는 것을 넘어서 현재에 사용되면서 그 본래의 기능까지도 감당하는 것을 말한다. 기념물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건축물의 사용은 보존을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경년의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기념물이 사용됨으로 현재의 의미를 극대화하는 이중적 가치를 모두 담보하는 것을 말한다. 사용의 가치는 경년의 가치에 대립되는 가치이지만 기념물의 무조건적인 보전을 넘어 진정한 생명력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기념물을 포함한 역사적 환경의 보전에 관한 수법을 세분하여 보면 표 1과 같다(김홍기, 2004). 이러한 수법들은 모두 역사적 환경의 보전 방법들이지만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보존이나 건물을 특정시기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복원의 경우 재생이나 재활성화는 어떤 의미에서 대립한다고 할 수 있다.

표 1. 역사적 환경 보전의 수법

수 법		정 의
현 상태의 유지	보존	건축물의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보전	가장 포괄적인 용어로 목적의식에 의해 과거의 유산이 어떠한 형태로 남겨지게 하는 행위
옛것의 회복	복원	건물을 특정시기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
	수복	복원보다 융통성이 있도록 기능도 회복시킴
새롭게 변형	갱신	건물의 구조체 보강 후 내, 외부를 완전히 수리
	쇄신	건물의 기존상태를 버리고 새롭게 하는 것
옛것과 새것의 조화	재생	옛것의 회복과 동시에 새로운 요구에 의한 변형
	재활성화	기능적 측면에서의 재생

유럽에는 건축물의 강건성을 이용한 용도변경을 통한 재생사례가 많다. 이는 건축물이 도시 속에서 자연적인 풍화를 감당하며 연륜을 누적해가는 것을 나타내면서도 새로운 기능을 담아냄으로 사용되는 현재적 가치를 갖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건축물의 재사용에 의한 효과는 친환경적인 건축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자원의 효과적인 사용을 할 수 있는 점이다. 건물의 재사용은 건축물의 주요부재를 재사용할 수 있으므로 폐기물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건축자재를 사용하는데 드는 에너지 사용과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둘째로 장소성을 통한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이미 언급한대로 다양한 시대의 건축물이 도시 내 함께 공존함으로 다양한 건축환경에 의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함으로 장소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건축물의 재활용에 의한 재생은 건축물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진정한 보전을 가능케 한다.

이 가운데 공공건물의 이전에 따른 이전적지는 도심 내 중요한 지리적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고 근대의 기념비적 건축물까지는 아니더라도 건축환경에 다양한 시간적 층위를 이룰 수 있어 재활용의 대안을 제시함으로 그 존재가 사라짐을 방지하며 장소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이용될 수 있다.

III. 전주 구도청사 주변에 대한 이론적 근거에 의한 해석

2장에서는 도시의 정체성과 장소성의 관계, 그리고 장소성 있는 공간을 위한 건축물자원의 재활용과 도시재생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논하였다. 3장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통하여 전주 구도심의 구도청사 주변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 전주 구도청사 주변의 역사적 맥락적 분석

그림 3과 그림 4에서 과거 전주부성의 성곽이 존재했던 읍성도시의 사대문안과 그 주변으로 시가지가 조성되었던 가로체계가 현재의 도로체계에도 남아 있음을 볼 수 있다. 전주의 사대문 축은 북서쪽으로 16.5도 기울어 있는데 현재에도 이 가로축과 세로축은 가로로 그대로 남아 있으며 주변도심의 가로패턴에도 영향을 주어 도심 격자패턴이 이 가로축과 세로축에 평행하게 개발되었다. 세로축은 감영5길을 중심으로 한 남북으로 이어지는 길이며 곧 전주객사, 전라감영, 풍남문으로 이어지는 남북의 축이었다. 즉 감영5길의 북단은 객사가 자리하고, 그 남단에는 풍남문이 있다. 객사는 현재 보존되어 있지만 변형된 모습으로 충경로의 중요한 노드를 이루어 약속의 장소가 되었고 그 남단의 풍남문 역시 보존되어 있다. 풍남문은 그 동측에 있는 한옥마을의 경기전과 전동성당을 양 옆에 끼고 있는 태조로 축과 감영5길 축이 만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노드를 형성하고 있다. 즉 한옥마을 경기전, 전동성당, 풍남문, 전주객사로 이루

그림 3. 전주부성

* 완산십곡병풍도(국립전주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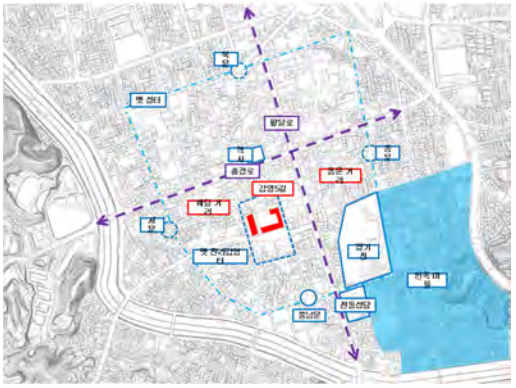

그림 4. 전주부성의 현재모습

그림 5. 전북도청 1958년도 모습(1952년 건설)
출처 : 홍성덕 역, 2010.

그림 6. 전북도청 2010년도 모습
출처 : 네이버 지도, http://map.naver.com/.

어지는 지역은 전주시의 역사적인 가로패턴내 오랜 시간 중요한 노드로 자리하며 전주시의 장소성 있는 공간으로 도시정체성을 이루는 물리적 자원이라고 하겠다.

감영5길의 주요한 건축물로 인식되는 구도청사가 있는 자리는 전라감영터로 이러한 장소성 있는 공간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이 자리에 조선시대에 있던 전라감영건물이 전라북도 청사로 1910년 일제강점기 이후까지도 사용되었다. 1921년 선화당 앞 내삼문, 중삼문을 헐고 2층으로 된 근대건축물을 신축하여 도청 본관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1951년 도청 경찰 무기고가 폭발함으로 소실되었고 이때 선화당도 함께 소실되었다. 이에 따라 그림 5와 같이 1952년 11월 도청사의 2층 건물을 완공하여 그 후 몇 차례의 증축공사를 거쳐 그림 6과 같은 3층의 도청사로 사용하다가 2005년 6월 현 도청이 서부신시가지로 이전함에 따라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홍성덕 역, 2010).

그림 7에서 감영5길 주변의 건축물의 건립시기를 보면 60년대 이전 건축된 것부터 2000년대 건물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60년대 이전의 건물의 경우 대부분 리노베이션으로 새로운 재료가 덮이는 등 입면이 변형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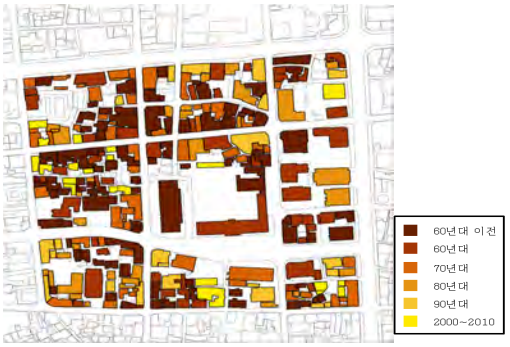

그림 7. 감영5길 주변 건물의 연도별 현황

그림 8. 구도청사 의회동 입면(위) 및 2층 회의실(아래)
출처 : 네이버 지도, http://map.naver.com/ (위), 2015년 7월 필자 촬영 (아래).

이다. 이에 비해 구도청사 건물은 이 시대 공공건축물의 공간과 입면을 잘 보여주고 있어 도시 내 한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물로 도시정체성을 이루는 중요한 물리적 자원이다. 구도청사는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구조로 남측동은 3개 층으로 중복도형으로 되어 양측에 사무실이 배치되며 중앙부의 남측에는 테라스, 북측에는 중앙계단이 자리 잡고 있다. 테라스가 있는 부분에 도지사 집무실과 3층에는 연회장이 있었다. 동측동은 남측동과는 달리 편복도로 되어 있어 평면적으로 얇고 북쪽의 의회동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의회동은 그림 8과 같이 1930년

대에 지어진 것으로 2층에는 장스팬으로 된 높은 천정의 대형 회의실이 있어 역사적으로 보존가치가 높다고 하겠다.

2. 전주 구도청사 주변의 유휴공간의 상황

풍남문에서 객사로 이어지던 492m의 세로축은 전라감영5길, 풍남문3길로 남아 있다. 이에 팔달로가 1963년 전국체전을 계기로 4차선으로 평행하게 나면서 도시의 확장이 시작되었다. 조선시대의 서문과 동문을 잇는 가로축은 웨딩거리와 동문거리로 남아있으며 1980년 전국체전을 계기로 4차선의 충경로가 평행으로 나 있다(정광민 등, 2007). 60년대-70년대의 전주시 개발과 함께 전국체전이 있을 때마다 팔달로와 충경로 등 자동차중심의 도로가 나면서 구도청사 주변의 도심 중심축은 그 자리를 새로운 팔달로와 충경로로 내주었으며 활기를 잃어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중심축의 기능을 내주면서 구도청사와 감영5길 주변은 유휴공간이 형성되었으며 그 원인을 보면 2장에서 언급한 자동차 사용의 증가와 근대 건축가들의 외부공간에 대한 태도, 용도정책과 도시개발, 공공공간의 사유화, 부지의 이용 변화 등을 볼 수 있다.

그림 9에서 감영5길을 축으로 한 대지의 사용을 보면 다양한 스케일이 혼재하고 있다. 구도청사나 완산경찰서, 산업은행, 경원동 우체국, 전주상공회의소 등의 4-5층 건물이 10m정도의 폭의 1층짜리 건축물과 함께 혼재하고 있어 가로의 연속성을 읽기 어려우며 이는 가로가 하나의 동질한 경관이 되지 못하게 한다. 그림 10과 같이 감영5길의 폭은 대략 9m이며 건물높이 : 가로폭 비는 1층일 경우 0.33, 4층 건물의 경우 대략 1.33으로 단면상의 혼재를 반영하고 있다. 가로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건축물이 각 블록의 코너를 정의하지 못하고 규정되지 않는 외부공간이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특히 구도청사의 남동측 코너 부분은 잘 정의되지 않는 주차장으로 사용함으로 공공공간이 배타적인 사적영역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지역상권의 변화로 공동화되는 건축물의 증가와 함께 유휴지의 증가로 나타나며 가로의 연속성이 더욱 단절되고 있다. 이러한 공공공간에 인접한 유휴지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특히 도로변 주차의 확대로 공공공간의 사유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도로 폭이 9m 정도의 도로로 보도의 마련을 할 수 있는 충분한 폭이 마련되지 않아 보차분리가 되지 못하고 혼재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행환경은 매우 열악하여 장소성을 높이는 긍정적 경험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

구도청사를 중심으로 한 감영5길과 풍남문3길은 맥락적으로 풍남문에서 객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한옥마을의 도보환경을 연장시킬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러한 건축적 경관의 연속성 단절과 많은 간판들로 인해 객사, 팔달문을 건축적 비스타로 잡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감영5길 주변의 물리적 환경의 문제점을 개선하며 그 역사적, 맥락적 중요성을 극대화하여 전주시의 정체성을 창조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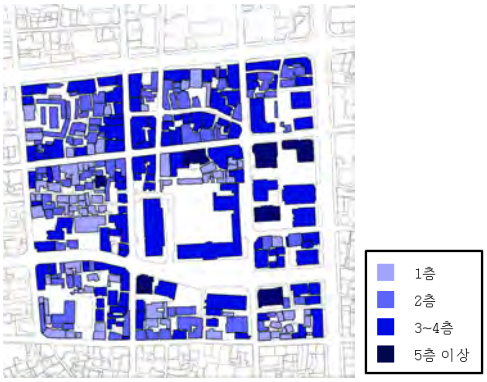

그림 9. 구도청사 주변 건축물의 층고

그림 10. 감영5길 전경 북쪽으로(위), 남쪽으로(아래)
출처 : 네이버 지도, http://map.naver.com/.

3. 전북 구도청주변의 장소생성을 위한 다층적 제안을 위한 고려요소

도시재생의 면적인 도시재생 경향을 고려한 전라감영 주변은 객사에서 풍남문으로 연결되는 감영5길, 구도청사, 그리고 풍남문에서 동측으로 연결되는 태조로와 그 좌우로 경기전, 전동성당이 있다. 이런 모든 점적인 요소들을 총합해서 연결할 수 있는 장소적 네트워크에 의한 면적인 확장이 더 중요할 수 있겠다. 이런 면적인 확장으로 Kevin Lynch가 말한 도시구조를 형성하는 5요소의 성격을 분명하게 함으로 도시의 정체성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다.

또 하나의 경향으로 역사적 환경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경제적 사회적 측면의 정주인구의 확보를 위한 다양한 용도와 양식의 건축물이 조화되는 가운데 보행환경 개선과 이를 돕는 공공공간의 도입이 필요하다. 즉 먼저 전라감영지로 연결될 수 있는 보행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도울 수 있는 소매업의 활성화와 현재 그림 11과 같이 존재하는 구도청사의 주차장 공간을 공공 옥외공간으로 만들며 도청사 주변 가로에서 접근을 극대화하는 것을 병행할 수 있다.

다음은 전라감영지 자체에 대한 재생방안으로 구도청사의 건축적 양식을 보존하면서 이를 공공시설로 변용하여 재활성화 하는 것이다. 이는 전주 구도청사 주변을 전주부성 남북축의 역사적 의미를 지니면서도 현대 도시의 다양성을 추구하며 장소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전라감영의 유휴공간이 된 구도청사의 경우 최근까지 다양한 사회적 단체의 모임시설로 이용되고 있었다.

그림 11. 구도청사의 내정의 주차장 공간현황
* 2015년 7월 필자 촬영.

그림 12. 구도청사 후면의 현재 모습
* 2015년 7월 필자 촬영.

구도청사는 1950년대의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구조로 그 시대의 건축물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으며 건축 후 여러 가지 전주시의 근대 역사적 사건과 개인의 기억을 담고 있다. 특히 건축입면의 경우 창의 재질이나 비례, 코니스 등의 건축 디테일을 통해 근대건축물로서의 분위기를 보여주어 그 역사적 가치가 높다. 구도청사의 이런 점은 풍남문에서 객사로 이어지는 전주부성의 남북축에 풍남문이나 객사와는 다른 시대의 건축물을 공존시켜 각자 건물이 갖는 시대를 중첩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다양한 물리적 환경의 제공은 다양한 행위와 경험을 담을 수 있으며 이로써 장소감을 높이는 데에도 유리함을 언급하였다.

현재 구도청사는 세월의 흔적을 지니며 자연스럽게 풍화하고 있으며 이를 여러 영화의 배경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는 이 건축물이 개인의 감성에 풍부하게 호소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이다. 이런 세월의 흔적과 자연스러운 풍화는 근대사나 현대사의 역사적 가치를 넘어 좀 더 시민들에게 감성적으로 직접적인 경년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또 이런 경년의 가치에 현재적 사용의 가치를 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임에도 단순한 보존에만 머물러 있다면 건축물이라는 근본적인 성질을 잃은 채 활기를 잃어갈 것이며 도시의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 이 건축물의 강건성을 고려한 것이어야 하겠지만 건축물의 재사용을 위한 구조를 보강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러한 점에서 구도청사는 재활성화라는 작업을 거쳐 역사적 가치의 보존과 함께 경년의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사용의 가치를 생성해 가야할 숙제를 지니고 있다 하겠다.

IV. 전주구도심 구도청사 주변 재생을 위한 건축적 제안

1. 감영5길에 대한 대안 제시

감영5길은 한옥마을의 연장으로 이용될 수 있다. 한옥마을은 관광지로서 2014년 592만 관광객 수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옥마을을 연장하는 네트워크로서의 풍남문, 구도청사, 전주객사의 보행동선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데, 감영5길이 연결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

감영5길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우선 거리 보행환경의 연속성을 회복시켜주어야 한다.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바꾸어 주며 도로의 바닥재가 속도를 낼 수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 자동차가 지날 수 있으면서도 보행이 우선인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도 있다. 이는 한옥마을에서 풍남문을 거쳐 객사로 가면서 다양한 경험을 동반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데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거리 주변의 건축물들이 감영5길과 풍남문3길로 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열어 줄 수 있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주차장 공간들을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는 건축물이나 쌈지공원으로 변화시키며 가로의 통로로서의 성격뿐 아니라 곳곳에 공공적 머무름의 공간을 삽입시킬 수 있다. 팔달로가 상업과 업무의 중심이 되는 축을 이룬다면 감영5길은 문화와 휴식의 통로로서의 축을 형성하면서도 전주부성의 남북축의 역사적 의미를 담을 수 있다. 이는 유휴공간을 이용하면서 이러한 문화와 휴식의 통로가 되면서 사람들의 다양한 행위와 이벤트가 열릴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구도청사의 재활성화에 의한 사용대안

구도청사의 경년의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사용의 가치가 중요함을 앞장에서 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구도청사의 건축물의 변용이용을 제안하며 그 프로그램과 디자인의 방향을 그림 13과 표 2와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구도청사의 동남쪽의 현재 사용되는 유휴공간과 같은 전정의 주차공간은 전라감영로와 감영5길의 노드에 형성되는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다. 또한 구도청사로 둘러싸여 있는 내정의 주차공간은 이 지역의 도심 내 휴식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다. 구도청사의 근대건축물의 입면은 그 공원의 경년적 가치를 가지는 배경이 될 수 있다.

그림 13. 구도청사의 재활성화를 위한 건축적 제안

표 2. 구도청사 건축물의 가치와 재활성화의 전략

가 치	내 용				
역사적 가 치	1952년 완공된 건축물로 근대건축물의 입면구성을 보이고 있으며 창틀의 재질과 비례의 고유성이 있음				
경년의 가 치	초기 벽돌로 시공하여 페인트로 표면처리를 하는 등 다양한 재료의 중첩을 보이며 자연스럽게 풍화하고 있는 가운데 시간적인 연륜을 느끼게 하고 있음				
사용의 가 치	현황	제 안			
	현재 여러 사회단체들의 모임을 담고 있음	공간	제안내용	대상	
		옥외 공간	방문객을 위해 남동측 전정은 전라감영로와 감영5길의 노드로서 공공공간으로 사용	방문객	
			중정부는 공공공원으로 방문객과 시민의 휴식처로 사용	방문객, 시민	
		건축물 내부 공간	공공공원의 배경을 이루며 구조적인 보강을 전제로 문화나 역사의 전시공간이나 시민들을 위한 공공도서관과 여러 편의시설을 동반한 복합시설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을 제안	시민, 방문객	

전정과 후정이 도시의 공공적 공원으로 조성됨과 함께 구도청사 건축물자체는 공공적 기능을 담아 재활성화 할 수 있다. 관광객들을 위한 문화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전시시설을 담는 공공시설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외 시민들의 휴식과 교육 등을 부여할 수 있는 도서관시설 또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같은 제안이 가능한 상황에서 현재 계획되고 있는 전라감영의 복원은 현재까지 그 기능을 다해 왔던 기존 구도청사 건축물의 철거를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맥락적 자원을 무시한 전통건축물의 복원은 오

히려 도시의 다양성을 저해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전주시는 전통문화를 상징적으로 보이는 경기전을 중심으로 한 한옥마을이라는 주요한 자원을 갖고 있지만, 근대건축양식의 자원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그간 전주시는 근대건축물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며 많은 근대건축물을 허물어 버린 바 있다. 이런 경향은 우리의 근대건축물이 일제시대의 건축물인데도 기인한다. 하지만 이런 시대를 반영할 수 있는 건축물을 한번 허물고 나면 다시 복원하기는 쉽지 않아 귀한 자원을 잃었던 경험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현대 지역도시의 정체성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을 논하였다. 여기에 도시의 정체성을 이루는 물리적 환경으로 거리와 그 주변의 경관을 이루는 건축물의 장소성은 도시의 정체성을 이루는데 중요하다. 이에 전주 구도심의 구도청사와 그 주변은 전주부성 남북축을 이루는 감영 5길과 전라감영로로 둘러싸이며 도시민에게 기억과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중요한 장소성이 있는 곳으로 구도심의 도시재생사업에서 중심이 되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도시재생이 점적인 재생에서 면적인 재생으로 도심 내 주요한 장소성 있는 공간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전략과 그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거점을 삽입하는 전략을 구상한다면 감영5길은 한옥마을에서 풍남문을 거쳐 객사로 연결할 수 있는 물리적 연결성이 있어 한옥마을이 연장되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조선시대에서부터 만들어진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있어 그 의미를 더한다. 그 중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노드로서의 전라감영이 있었던 구도청사부지는 공공적인 성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면에서 재생의 의의가 있으며 파급하는 효과가 크다. 경기전을 중심으로 한 한옥마을이 전통적 건축양식의 지역으로 동질성을 가지고 이미지를 창조하고 있다면 감영5길과 풍남문3길은 근대를 연상할 수 있는 건축양식을 보존하여 다양한 건축적 경험을 유도하며 연륜이 있는 도시의 이미지를 중첩해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구도청사는 1952년에 완공된 건물로 근대문화재나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공공건축물로서 여러 가지 이야기와 의미를 간직하고 있다. 철근콘크리트 라멘조구조의 50년대 건축적 디테일로서도 창의 입면이나 코니스 등을 통해 현대에는 잘 건축하지 않는 양식으로 입면을 이루고 있는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이러한 건물이 자연적 풍화를 겪으며 시간적인 연륜을 지니고 있어 전주시내 경관의 연륜을 보여주면서 다양한 건축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구도청사는 건축물 자체의 공공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도심내 공공적 휴식공원의 역할도 담당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만족할 수 있는 건축적 장소가 될 수 있는 행위와 프로그램으로 도서관이나 전시문화시설을 제시하였다. 구도청사의 도서관으로서의 재생은 지역의 학문과 예술을 아우르는 중심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하지만 현재 구도청사는 전면철거와 해당 대지내 전라감영의 복원이 계획되었으며 이를 통해 전주시의 조선왕도라는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하는데 일조하는 것으로 의도하고 있다. 전라감영의 복원 가운데 사적인 고증을 통한 사실 복원이 중요하게 제기 되면서도 이러한 복원된 장소의 새로운 해석 및 사용을 위해 다양한 문화컨텐츠가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도 구도청사 부분의 보존과 병치 등은 다양한 공간 및 컨텐츠 수용을 위해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양한 장소성을 갖는 공간의 총체로서 도시정체성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도시에서 하나의 건축물의 철거나 복원은 아주 짧은 시간에 결정되고 이행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건축물에 대한 장소로서의 기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것이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기억의 누적과 이에 대한 공감으로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에 전라감영의 전통과 역사에 대한 명분만을 위한 한 방향으로의 복원은 또 하나의 재개발식 도시개발임을 지적한다. 이보다는 도시의 적층된 기억을 남길 수 있는 구도청사 건축물에 대한 재조명과 이의 보존이 또 하나의 대안일 수 있음을 말하고 싶다. 이는 도시 내 공공적 공간의 재활용에 의해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지속가능한 도시건축과 다양한 도시건축의 층을 누적해나가는 방법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강홍빈·김광중·김기호·김도년·양승우·이석정·정재용 역, 2009,「도시설계: 장소 만들기의 여섯 차원」, 서

울: 대가(Carmona, M., Heath, T., Oc, T., and Tiesdell, S., 2003, *Public Places Urban Spaces*, Amsterdam: Elsevier.).

김영기·김승희·난부시게키, 「도시재생과 중심시가지 활성화」, 2009, 파주: 한울.

김우영, 2012, "후기 산업시대 문화기반 도시재생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3(6), 5-21.

김홍기, 2004, "역사적 도심재생의 계획특성에 관한 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5), 161-170.

오덕성·이기복·유르겐피치, 2007, "문화기반형 도시재생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논문집, 7(6), 53-64.

이정수·윤성훈·한정, 2011, "도시정체성 분석을 통한 도시디자인 추진전략 수립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2(6), 5-15.

이지현·동정근, 2007, "산업유산의 경관요소 적용을 통한 문화경관 형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7(1), 229-232.

임승빈·정윤희·허윤선·권윤구·변재상·최영석, 2011, "장소 경험 분석을 통한 도시 내 장소성 특성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39(6), 46-56.

정광민·곽희종·김현숙, 2007, "중심가로를 통해본 역사도시 전주 구도심의 형성, 번영, 쇠퇴, 재생과정에 관한 고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추계정기학술대회논문집, 865-876.

진경돈·박경난 역, 1992, 「도시공간 디자인의 이론, 역사, 방법론」, 서울: 집문사(Trancik, R., 1986, *Finding Lost Space: Theories of Urban Design*, Hoboken: Wiley.).

최병하 역, 2013, 「기념물의 현대적 숭배」, 서울: 기문당 (Riegl, A., 1903, *Der Moderne Denkmalkutus*.).

홍성덕 역, 2010, 「빼앗긴 역사 일그러진 근대」, 전주: 사단법인 체육발전연구원.

황희연·백기영·변병설, 2011, 「도시생태학과 도시공간구조」, 서울: 보성각.

네이버 지도, http://map.naver.com/.

교신 : 김준영, 55069,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전주대학교 건축학과 (이메일: junyoungkim@jj.ac.kr)

Correspondence : Jun-Young Kim, 55069, 303 Cheonjam-ro, Wansan-gu, Jeonju-si, Jeollabuk-do, Korea, Department of Architecture, Jeonju University (Email: junyoungkim@jj.ac.kr)

투 고 일: 2015년 11월 19일
심사완료일: 2015년 12월 4일
투고확정일: 2015년 12월 5일